

중요치 않은 인간의 삶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 연구—

최 동 용**

주제분류 윤리학, 가치론

주요어 인생의 중요성, 언젠가는 사라질 일, 가치의 총량, 시제편향, 영구성

요약문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생의 하찮음을 보이기 위해 종종 언급된다. 본 논문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생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이 설명에 따르면 인간 활동과 그 결과는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켜야지만 인생에 우주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젠가 사라지기에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이로써 인생은 우주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시제 편향성 설명과 영구성 설명을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과 비교하고, 이 설명들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의 우수성을 논증한다. 더불어 영구적 가치에 근거한 비판을 소개하고 이 비판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을 논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연세대/인하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인생을 하찮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종종 “언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다. 일례로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는 자서전 *Confession*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시 나를 바쁘게 했던 집안일에 대해 고민하던 중, 불현듯이 질문이 머리에 스쳤다. “훌륭하다. 너는 300마리의 말뿐만 아니라 사마라주에 6000데스야틴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다음엔 어쩔 텐가?” 그리고 나는 충격을 받아 뭘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작품이 가져다준 명성에 대해 생각하던 차에 나 자신에게 말했다, “아주 좋아, 너는 고골, 푸시킨, 셰익스피어, 몰리에르보다, 세계의 모든 작가보다 유명해질 거야 - 그래서 어쩔 건데? [...] 오늘이 아니면 내일 병과 죽음이 모든 이에게, 나에게 다가올 텐데 (사실 이미 다가오고 있을 수도), 그리고 악취와 벌레 맡곤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 그렇다면 왜 뭘 하려 들지? 어떻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살 수 있지?”¹⁾

톨스토이는 인간의 활동과 결과물이 언젠가 사라져 없어진단 사실을 새삼 깨닫고 존재론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다. 특히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을 이어갈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믿었었다. 달리 말해, 정교회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생각을 바꾸긴 했지만, 톨스토이는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결국 사라져 없어지기에 인생이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insignificant*) 여겼었다.

인간의 삶을 중요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에게 톨스토이의 주장은 위협

1) Tolstoy, *Confession*, trans. by David Patters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3, 27~30쪽.

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주장처럼 정말 인간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가? 톨스토이의 주장과 관련하여 세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지는가? 둘째, 이들이 사라져 없어진다면, 이 사실을 근거로 인간 삶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²⁾ 셋째, 중요치 않다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러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다면 톨스토이의 주장은 인간의 삶을 중요치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더불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하찮다고 판단할 수 없단 것이면 역시 톨스토이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삶을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된 세 질문 중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가 언젠가 흔적없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인간의 삶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왜 이 사실이 인생의 중요치 않음을 판별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이 되는지 그럴듯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이 연구는 톨스토이 추론(이하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의 완결된 형태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본 논문의 의도대로 그럴듯한 설명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의 비판자는 자신이 논박해야 할

2) 사무엘 셰플러(Samuel Scheffler)에 따르면 영원한 삶은 시간의 희소성을 갖지 않기에 그 삶의 주체는 주변 대상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 Scheffler, *Death and the Afterlife*, ed. by Niko Kolod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97쪽. 셰플러의 주장에 반대하여 프레스턴 그린(Preston Greene)은 삶이 끝난다는 바를 알지 못하는 아이도 대상에 가치를 둔단 사실을 지적하며, 끝없는 삶의 가치부여 가능성을 주장한다. Greene, “Value in Very Long Lives”, *Journal of Moral Philosophy* 14, 2017, 429-432쪽. 혹자는 셰플러의 주장에 근거하여 끝나지 않는 활동은 그 활동의 주체가 영원히 살아야 가능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당사자는 시간의 희소성을 겪지 않아 주변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주변 대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당사자가 결코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 보기 어렵기에, 끝나지 않는 활동을 요소로 하는 삶은 중요한 삶이 아니라고 혹자는 주장할 수도 있다.

대상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위한 그럴듯한 설명이 논박당한다면 이 추론의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2절에서는 중요성에 관한 절대적 가치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절대적 가치관점을 전제로 하여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을 선보인다. 3절에서는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두 설명을 소개하고, 본 논문의 설명이 이 두 설명보다 우수한 측면을 언급한다. 4절에서는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을 영구한 가치 개념에 근거해 비판하려는 시도를 소개하고, 이 시도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2. 절대적 가치관점과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 설명

이번 절은 삶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이 전제할 관점, 즉 절대적 가치관점을 소개한다. 더불어 대상의 중요성에 관한 이 관점에 근거하여 ‘우주적 중요성’ 개념을 설명하고, 인간의 삶이 우주 영역에서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특히나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생의 우주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1) 절대적 가치관점

대상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대상이 갖는 가치를 언급하는 시도는 합당해 보인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톨스토이의 삶이 구현해 낸 문학적 가치들을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가치를 통해 대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는 이 관점, 즉 가치관점을 지지하는 가이 카헨(Guy Kahane)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관점의 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영역에 따른 대상의 중요성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 대상이 그 영역 내의 내재적 가치에 어느 정도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항목이 가치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오면, 그만큼 그 항목은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된다.³⁾

카헨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치관점의 핵심주장은 가치에 있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해당 대상의 중요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가치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대상은 중요한 항목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가치관점의 핵심주장에 카헨은 네 가지 추가주장을 덧붙인다. 첫째, 중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치는 도구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이다. 둘째, 가치의 양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변화가 가치의 상승이 아닌 하락에 의한 것이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항목이 특정 영역 내 가치를 상당히 줄어들게 한다면, 이 또한 가치의 변화이기에 해당 항목은 그 영역에서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셋째, 중요성을 판단할 때 해당 대상이 일으키는 가치변화의 절대량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보다 얼마나 더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상대량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상보다 더 큰 가치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대상은 중요한 대상이 된다. 넷째, 대상의 중요성은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은 예술 공동체에서는 중요하지만, 등반 동호회에서는 중요치 않을 수 있다.⁴⁾

카헨의 위 네 가지 추가주장 중 세 번째 추가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

3) Kahane, "Importance, Value, and Causal Impact", *Journal of Moral Philosophy* 19, 2022, 579쪽.

4) 추가주장에 대한 카헨의 자세한 설명과 논증은 Kahane, 같은 논문, 579~582쪽 참조.

다. 세 번째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찮지만 다른 대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대상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대상은 분명 존재하는 듯 보인다. 논의를 위해 예술 공동체 X에서 생산해왔던 모든 도자기가 형편없는 색깔과 모양으로 아주 적은 예술적 가치만 갖는다고 가정하자. 더불어 다른 도자기처럼 아주 적은 가치를 지니지만, 운에 의해 그나마 조금 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도자기가 공동체 X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도자기가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면 인간의 능력, 즉 의지를 발휘해 얻게 된 물품이라는 점에서 해당 도자기는 거대한 완전주의적 가치를 지녔을 것이다.⁵⁾ 하지만 이 도자기는 운에 의한 결과이고 예술적으로도 적은 가치만 지니기에 예술 공동체 X에서도 중요치 않아 보인다. 달리 말해 이 도자기는 그 존재로 인해 다른 도자기보다 더 큰 가치변화를 공동체 X에 일으키나 다른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하찮은 항목의 지위를 갖는 듯 보인다.

카헨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반례, 즉 다른 대상만큼만 가치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요한 항목의 지위를 갖는 대상도 존재한다. 등산 공동체 Y의 모든 구성원이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가정하자. 더불어 새로운 구성원도 다른 구성원들만큼 극도의 의지를 발휘해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랐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다른 모든 구성원이 산 정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극한의 인내력을 발휘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는 점에서 신입 회원의 정복도 공동체 Y에서 중요한 활동의 지위를 갖는 듯 보인다. 달리 말해 의지를 극한까지 발휘해 얻게 된 결과라는 점에서 신입 회원을 포함해 구성원 각각의 정복은 비슷한

5) 그웬 브래드포드(Gwen Bradford)는 이론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 외에 인간의 완전주의적 능력 중 하나로 의지를 꼽고, 의지의 결과로 얻게 된 항목이 완전주의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브래드포드의 주장은 Bradford, "The Value of Achievement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2, 2013, 215~222 쪽 참조.

정도의 완전주의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의지를 극한까지 발휘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분명 신입 회원의 정복은 공동체 Y에서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위 두 반례를 피할 수 있는 가치관점의 방안은 카헨의 세 번째 추가주장을 가치변화의 절대량에 관한 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관점이 대상의 중요성을 가치의 절대량에 근거하여 결정한다면 공동체 X의 운에 의한 도자기는 중요 항목에서 제외된다. 운에 의한 도자기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었다면 인간 능력을 극도로 발휘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커다란 완전주의적 가치를 지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도자기는 운에 의한 결과이고 가정 상 소량의 예술적 가치만을 갖기에 공동체 X에서도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 가치의 절대량을 가지고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신입 회원의 에베레스트 정복은 중요한 활동의 지위를 갖는다. 신입 회원의 에베레스트 정복은 의지를 극도로 발휘한 결과라는 점에서 거대한 완전주의적 가치를 지니며, 이 사실로 인해 해당 정복 활동은 중요 항목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논의는 중요성을 판단할 때 다른 대상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그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의 가치 총량 그 자체만을 살펴야 한단 입장을 옹호한다. 이 논의가 가치 절대량에 따라 중요성이 정해진다는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진 않지만 적어도 세 번째 추가주장만큼 그럴듯하단 바를 보인다.

카헨의 세 번째 추가주장 외에 가치관점은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갖는다. 이 관점은 가치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해당 대상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되는지 그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 아래의 세 입장이 가능하다:

시제 중립성: 대상으로 인해 가치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판단 시점 기준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미래인지는 해당 대상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어떤 고려사항도 되지 않는다.

강한 시제편향: 과거의 가치변화는 해당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 데 전혀 이바지하지 않는다.
 약한 시제편향: 과거의 가치변화는 해당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나 모든 조건이 같다면 과거의 가치변화는 현재나 미래의 변화보다는 해당 대상을 덜 중요하게 만든다.⁶⁾

판단 시점 기준 대상이 일으킨 가치변화가 과거에 존재한다면 위 입장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가치변화의 양이 충분하게 크다면, 설령 가치변화의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시제 중립성은 해당 대상을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 강한 시제편향은 해당 대상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고, 약한 시제편향은 시제 중립성이 판단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나 해당 대상이 중요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위 논제 중 강한 시제편향은 합당한 입장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동체 Y의 구성원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시점은 과거이지만 그들의 정복은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가치변화의 시점과 관련해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논제는 시제 중립성과 약한 시제편향이다. 시제 중립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과거는 현재와 미래처럼 시간을 이루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변화가 과거에 일어났다고 해서 해당 대상을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약한 시제편향의 지지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논제를 평가하는 것은 본

6) 행위의 타산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문헌의 시제 중립성 논제에 따르면 행위 주체가 행위의 결과로 언제 이익을 받게 되는지는 해당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전혀 중요치 않다. 합리성에 관한 시제 중립성 논제는 Preston Greene and Meghan Sullivan, "Against Time Bias", *Ethics* 125, 2015 참조. 시제 중립성 논제와 달리 미래 편향성 논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과거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데일 돌시(Dale Dorsey)는 미래 편향성 논제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미래 편향성 논제를 옹호한다. Dorsey, "Future-Bias: A (Qualified) Defense",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8, 2017.

논문의 범위 밖이며, 강한 시제편향이 아니라면 어떠한 논제를 택하더라도 이하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은 논의의 간편함을 위해 시제 중립성을 전제할 것이다. 더불어 카헨의 세 번째 추가주장을 절대적 가치에 관한 주장으로 수정 후 그 입장을 수용할 것이다. 시제 중립성과 수정된 카헨 관점의 결합을 “절대적 가치관점”으로 이름하고, 이하 논의는 이를 전제할 것이다.

2) “언젠가는 사라질 일” 설명

절대적 가치관점은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우주라는 영역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선 우주 영역에 큰 가치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2)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몇몇 시점에 일으킬 수 있는 가치변화는 우주 영역에서 크다 볼 수 없기에, 인간의 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물이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천문학적 시간 기준으로 오랫동안 존재하여 오랜 기간 가치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3) 하지만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나 인류가 놓인 조건을 고려하면 이 ‘언제’는 천문학적 시간기준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는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는 큰 가치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들로 구성된 인생은 우주적 중요성을 지니지 못한다. 톨스토이의 삶이 하찮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가 이뤄낸 업적도 언젠간 사라지기에, 업적에 따른 가치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언젠가는 사라질 일”에 대한 이 설명을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이라 이름할 것이다.

(1)의 주장, 특히 ‘우주적 중요성’에 근거한 대상 평가는 문헌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리처(Nicholas Rescher)는 ‘천문학적인 규모에서 인간은 이름 없는(obscure) 행성의 이름 없는 거주민’

이라고 말하며 우주 영역 내 인간의 중요성을 판단한다.⁷⁾ 카헨은 ‘우주적 중요성 평가’의 뜻을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주 영역 내 대상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주 내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모든 장소에 대한 해당 대상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⁸⁾ 카헨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주는 공간적 영역이면서 시간적 영역이기도 하기에 우주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주 내 모든 대상과 공간에 더해 모든 시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적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모든 시간, 공간, 대상에 걸쳐 일어나는 가치변화의 전체 양을 고려해야 한다.

(2)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몇몇 시점에 걸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우주 영역 기준으로 크지 않다. 이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혹자는 이도 랜도(Iddo Landau)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에 관한 주장을 변용할 수 있다. 랜도는 인생의 우주적 유의미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주적 관점은 비-우주적인(non-cosmic), 오히려 온건한 유의미성(meaningfulness) 기준을 지지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 기준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⁹⁾

랜도에 따르면 우주 영역의 유의미성 기준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특히 그는 낮은 유의미성 기준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이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예술 공동체와 등산 공동체)보다 그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폭이 넓은

7) Rescher, *Human Interests: Reflections on Philosophical Anthrop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153쪽.

8) Kahane, 같은 논문, 582쪽.

9) Landau, “The Meaning of Life *Sub Specie Aeternitati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9, 2011, 729쪽.

우주이지만 영역의 범위와 판단 기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도 없을 수 있기에 우주 영역의 중요성 기준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 만약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몇몇 시점에 일으키는 가치변화의 총량은 우주 영역에서도 충분히 큰 것일 수 있다.¹⁰⁾

얼마나 가치변화를 일으켜야 우주 영역에서 중요해지는지 그 여부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하지만 우주적 중요성에 관한 여러 평가는 랜도의 입장을 약화한다. 개인적 비극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사람들은 종종 그 비극을 광활한 우주 속 작은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다. 이 권유는 비록 그 사건이 개인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우주 영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제시된다. 더불어 오랜 시간 계속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 사건은 인류사에서는 중요한 일로 기록될 것이나 우주적 사건으로까지는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 두 사례는 중요성에 관한 우주적 기준이 개인적 기준과 인류사적 기준보다 높은 입장을 지지한다. 특히 이 사례는 천문학적 기준으로 짧은 시간에 일으키는 가치변화만으로는 해당 인간의 삶이 우주적으로 중요해질 수는 없단 주장을 뒷받침한다.

몇몇 시점에 일으키는 가치변화만으로는 인생을 중요하게 만들 수 없는 인간 행위와 그 결과지만 이들이 천문학적 시간 기준으로 오래 존재해 그동안 가치변화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이들로 구성된 인생은 우주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3)을 통해 전제되었고, 실제도 그러하듯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천문학적 기준으로 잠시 존재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키

10) 유의미성 연구는 Antti Kauppinen, "Meaningfulness and Tim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4, 2012 참조. 유의미성과 중요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Kahane, "Meaningfulness and Importance", ed. by Iddo Landau, *The Oxford Handbook of Meaning in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참조.

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생이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설명에 확인할 수 있듯이 언젠가 없어질 일이라는 사실이 인생의 우주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까닭은 언젠가 사라질 일이라는 사실을 통해, 더 자세히 말해 천문학적 시간 기준으로 곧 사라질 대상이란 사실을 통해 인간의 삶이 가져오는 가치변화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절대적 가치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을 위한 설명이었다. 혹자는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우주적 중요성에 국한해 뒷받침하는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한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에 따르면 언젠가 사라질 일들로 구성된 인생은 우주 영역에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비-우주 영역을 고려하는 경우 이 설명은 인생을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할 듯 보인다. 예를 들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의 옹호자가 인류사에서 아인슈타인의 삶이 갖는 중요성을 평가한다면, 그 옹호자는 상대성 이론 등을 통해 거대한 과학적 가치를 구현한 아인슈타인의 삶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언젠가 사라질 일”을 위한 설명은 영역에 상관없이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국한된 영역, 즉 우주 영역에서만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한된 영역에서만 이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을 위협하지는 못한다. 톨스토이의 사례가 보여주듯 “언젠가는 사라질 일”은 사람들에게 존재론적 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 이 현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경계케 하는 이유로, 이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이 사람들에게 존재론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설명은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의 위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괜찮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삶을 비-우주 영역에서 고

려한다면 존재론적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삶을 인류사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이 갖는 중요성을 반가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누가 되었건 자신의 삶을 우주 영역에서 판단한다면, 그 삶을 하찮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삶이 우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언젠가는 사라질 일”의 위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뒷받침하지만 관찮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혹자는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이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설명에 근거해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혹자는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에 따르면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켜야지만 해당 대상이 우주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데 ‘거대한 가치변화’ 개념과 ‘우주적 중요성’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이 ‘거대한 가치변화’와 ‘우주적 중요성’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 지적은 타당하다. 이 설명은 ‘거대한 가치변화’에 대해 인간이 짧은 시간에 일으키는 가치변화로는 얻을 수 없는 양이라고만 기술한다. ‘우주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리처의 연명을 통해서 직관적 토대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는 우주 내 모든 시간, 공간,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하는 중요성이라고만 ‘우주적 중요성’ 개념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분명함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대상을 성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작업은 개념을 가지고 해당 대상을 기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작업은 기술을 위해 사용된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지만, 기술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 개념이 불분명하단 사실을 들어 곧바로 해당 분석을

과기하는 선택은 성급하다. 이 경우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이 불가능하지 않거나 해당 작업이 매번 실패하지 않았다면, 대상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해당 분석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면 정량적 개념이 필요한 대부분의 분석은 시작될 수 없을 것이다.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 속 개념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더불어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갖지만, 이 설명은 “언젠가는 사라질 일”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므로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 속 개념들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설명을 완전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라 보아야 한다.¹¹⁾

3. 장점

이번 절은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위 설명의 장점을 보인다. 특히나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두 설명을 소개한 후, 이 두 설명이 갖는 한계나 문제점을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피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11) 이 외에도 익명의 심사자는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우주라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우주를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점, 절대적 가치관점은 시공간과 대상을 초월해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나 이를 초월한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절대적 가치관점과 이에 근거한 설명이 문제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절대적 가치관점의 핵심주장은 우주에서 중요한 대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 주장은 우주를 주체로 상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상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우주의 모든 시공간과 대상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가치관점이 이들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없다.

1) 시제 편향성

프레스턴 그린(Preston Greene)에 따르면 “언젠가는 사라질 일”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제 편향성 설명은 아래의 네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된다:

- (1) 우리의 관심 대상도 [언젠가 사라지기에] 그것이 (먼) 과거의 일 이 되는 시간은 찾아온다.
- (2) (먼) 과거의 대상은 [그 대상에게 중요성의 지위를 부여하는] 속 성 W를 갖지 않는다.
- (3) 고로, 미래의 언젠가 (그리고 그 후 모든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W를 갖지 않는다.
- (4) 미래의 언젠가 (그리고 그 후 모든 시점에서) 대상이 W를 갖지 않으면, 지금도 W는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아끼는 대상은 지금 [중요성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W를 갖지 않는다.¹²⁾

논의의 흐름에 맞게 시제 편향성 설명을 수정하자면 (1) 우주 속 모든 존재는 언젠가 사라져 과거의 일이 되고 말기에, 이들이 일으키는 가치 변화도 언젠가는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2) 어떤 대상이 일으킨 과거의 가치변화는 그 대상을 더는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 (3) 고로 대상이 일으키는 가치변화가 해당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하는 때는 언젠가 찾아온다. (4)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치 변화라면, 현재를 포함한 모든 시점에서도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러므로 여러 가치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시점에 상관없이 하찮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시제 편향성 설명의 두 번째 전제는 강한 시제편향이다. 앞서 살펴본

12) Greene, “It Doesn’t Matter Because One Day It Will End”,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24, 2021, 175쪽.

것처럼 강한 시제편향은 중요성에 관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에 이 논제를 지지하는 시제 편향성 설명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의 두 번째 전제를 비판하는 대신 그리는 이 설명의 비정합성(inconsistence)을 공격한다. 두 번째 전제에 따르면 가치변화의 시점은 해당 가치변화가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결정하는데 유관하다. 현재와 미래의 가치변화는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과거의 가치변화는 그 능력을 획득하지 못해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 반면 네 번째 전제에 따르면 가치변화의 시점은 해당 가치변화가 이미 획득한 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변화가 무능력하다면, 해당 가치변화는 그 무능력을 다른 시점에서도 유지하게 된다. 그리는 가치변화의 시점에 따라 중요성 부여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능력의 변화는 시점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정합적이라 말한다.

위의 설명과 같이 두 번째 전제는 능력의 획득에 관한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요성 부여 능력의 획득은 시제에 민감하다. 반면 네 번째 전제는 능력의 변화에 관한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중요성 부여 능력의 변화는 시제에 민감하지 않다. 그리는 이 두 주장이 서로 정합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나, 두 번째 전제는 능력의 획득에 관한 주장이고 네 번째 전제는 능력의 변화에 관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정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두 전제와 관련해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시제 편향성 설명이 임의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능력 획득과 능력 변화는 서로 다른 활동이기는 하지만, 중요성의 부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력의 변화는 상대적 시점에 민감치 않으나 획득은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¹³⁾

시제 편향성 설명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설명이 대상의 우주적 중

요성에 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우주 탄생부터 종말 직전까지 인간 A의 행위가 거대한 가치변화를 가져온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인간 A의 행위는 지구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주의 탄생부터 종말 직전까지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복지 수준을 극도로 향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주 전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인간 A는 우주 영역에서도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시제 편향성 설명에 따르면 A의 행위가 일으키는 가치변화는 우주 종말 시점에는 과거의 일이 될 것이기에, 종말 시점에 이 가치변화는 중요성 부여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다. 특히나 종말 시점에 무능력한 이 가치변화는 어느 시점에도 삶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하기에 시제 편향성 설명은 A의 삶을 하찮다고 판단해야 한다.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언젠가는 사라질 일” 옹호는 시제 편향성 설명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시제 편향성 설명은 강한 시제편향을 전제해야지 가능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편향은 시제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시제 편향성 설명과 달리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약한 시제편향 그리고 시제 중립성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대상의 우주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모든 시점의 가치변화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고 아니면 과거의 변화를 미래의 변화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앞서 편의를 위해 전제한 것처럼 시제 중립성을 받아들인다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전 시점의 가치변화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가치변화의 시점을 따지지 않고 가치변화의 절대량이 거대한지 그 여부만을 살펴 인생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
- 13) 익명의 심사자는 능력 획득과 능력 변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활동이기에 이 둘을 구분하여 비정합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심사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의 장점을 보이려는 이하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하 확인할 수 있듯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입장에 따라 비정합성 혹은 임의성의 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 시제 편향성 설명의 단점을 갖지 않는다.

다음으로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시제 편향성 설명과 달리 임의적이라는 혐의를 받지 않는다. 시제 편향성 설명은 능력의 획득과 능력의 변화를 구분하고, 전자는 시점에 민감하나 후자는 민감하지 않다는 임의적일 수 있는 주장을 한다. 이와 달리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능력의 획득’ 개념과 ‘능력의 변화’ 개념에 의존하지 않기에 애초에 시제 편향성 설명의 임의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에 따르면 미래 시점 기준으로 현재의 가치변화가 무능력하기에 현재에도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 대상이 일으키는 가치변화는 시점에 상관없이 해당 대상을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지만, 가치변화의 전체 총량이 적어 최종적으로 해당 대상에 중요한 항목의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 A 사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 A가 일으킨 가치변화는 언젠가 과거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제 편향성 설명은 인간 A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과거의 일이 될 지언정 천문학적으로 긴 시간 생존하며 우주 내 존재하는 생명체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A는 자신의 삶을 통해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킨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해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언젠가 사라질 삶이긴 하지만 인간 A의 삶을 중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영구성

영구성(permanence) 원칙은 인간 삶의 무의미성을 보이기 위해 종종 언급된다. 메간 설리번(Meghan Sullivan)이 소개한 영구성 원칙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영구성 원칙: 행위가 유의미한지 그 여부는 세계에 영구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달려있다.¹⁴⁾

유의미성에 관한 이 원칙은 삶의 하찮음을 보이기 위해 변용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중요한 것이 되려면 그 삶 속 활동과 결과물은 세계에 영구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영구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고로 인간의 삶은 중요치 않고 오히려 하찮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인생의 중요성에 관한 이 설명을 영구성 설명이라 이름할 것이다.

영구성 설명은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뒷받침할 수 있기에 인생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에 대해 총 세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 번째 비판은 단순 물리적 변화도 영구한 변화의 한 종류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 B의 행위로 소행성 궤도가 영구히 변경된다고 가정하자. 더불어 이동 경로가 본 진로에서 틀어졌지만, 이 외에는 가치변화를 포함하여 어떤 추가적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주 속 작은 돌덩이의 이동 방향만 변경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 B의 행위가 인간 B의 삶을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영구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구성 설명은 인간 B의 삶을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비판은 피터 싱어(Peter Singer)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비판의 핵심은 대상의 시간적 크기가 해당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⁴⁾ 싱어에 따르면 물체의 공간적 크기는 그 물체의 중요성과 무관하다. 거대한 천체라도 주변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천체는 중요한 항목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리

14) 영구성 원칙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Sullivan, *Time Biases: A Theory of Rational Planning and Personal Persist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Ch. 11.

15) Singer,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5, 216~217쪽.

작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복지 수준을 크게 상승시킨다면 이 존재는 중요한 항목의 지위를 갖는다. 싱어는 공간적 크기와 시간적 크기는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공간적으로 많은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해당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이 단순히 거대한 시간적 위치를 점유하는 것도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시점에 걸쳐 존재하는 대상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우주에 영구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시간적 크기는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은 중요한 대상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영구성 설명에 대한 마지막 비판은 시제 편향성 설명에 대한 마지막 비판과 같다. 인간 A의 행위가 우주의 탄생과 종말 직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거대한 이득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단, 이 행위의 영향이 종말 직전까지만 계속되어 그 영향을 영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주의 모든 대상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A의 삶은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구성 설명에 따르면 A의 삶은 그 영향이 영구하지 않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종말 직전과 종말 시점 사이의 짧은 순간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 A의 삶은 중요치 않은 것이 되고 만다.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영구성 설명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 영구성 설명에 대한 첫 두 비판은 ‘영구한 변화’ 조건을 공격한다. ‘영구한 변화’는 단순 물리적 변화와 시간적 위치의 점유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둘은 대상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모든 변화에 중요성 결정 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가치변화에만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 이유로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은 행성의 단순 진로를 변화시키는 행위가 해당 삶을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시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항목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제 편향성 설명을 평가할 때 기술한 것과 같이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대상을 항상 하찮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언젠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해당 대상은 우주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비록 그 영향력이 영구하지는 않지만 거대한 가치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인간 A의 삶은 중요하다.

4. 비판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변화는 절대량에 있어 충분히 크지 않기에 이들은 해당 인생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특히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는 짧은 시간만 존재하기에 제한된 시간에만 가치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이들의 가치변화는 절대량이 충분치 않다. 혹자는 이 설명의 핵심주장으로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가 잠시 존재한다면 이들이 일으키는 가치변화의 시간 역시 짧다는 가정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설령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잠시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일으키는 가치변화는 장시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크리스토퍼 프루지(Christopher Fruge)의 영구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이 반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영구한 가치변화가 가능하다면, 특히나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가 영구한 가치를 구현해 낸다면,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하여 인생의 하찮음과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설명하는 시도는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구적 가치의 존재는 미래 시점을 언급하며 인생의 하찮음을 주장하는 시제 편향성 설명과 영구한 변화의 불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는 영구성 설명도 위협한다 볼 수 있다.

프루지는 영구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삶에 대한 두 평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단순히 말해 우리는 고인이 된 이가 과거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여긴다. 우리는 끔찍한 삶을 살다간 이에 대해 그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비극이라고 말한다. 훌륭한 삶을 살다간 이에게는 그 삶이 잘된 일은 여전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¹⁶⁾

프루지에 따르면 불우한 삶을 살다 죽은 이에 대해 과거 사건이 당사자에게 여전히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다. 특히 비극적 사건이 여전히 나쁘다는 사실은 해당 사건이 고인에게 부정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사건이 사망 후 당사자에게 나쁠 수 있는 이유는 고인이 된 당사자가 추상적인 형태로 시간 속에 존재하고 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프루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망 후에도 고인이 추상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 추상적 존재에게 과거의 대상이 나쁠 수 있다면, 짧은 시간 존재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도 영원히 가치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끔찍한 사건이 영원히 존재하는 고인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곧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사건이 영원히 가치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될 것이다. 특히나 이 경우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과 달리 인간의 삶은 우주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인간 C가 다수의 사람을 고문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끔찍한 사건이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 가치의 총합이 부족하여 C의 삶은 우주적 중요성을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프루지의 주장대로 그 끔찍한 과거의 사건이 추상적 형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

16) Fruge, "Permanent Value",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8, 2022, 364쪽.

사건은 짧은 시간 존재하지만 오랜 시간 우주 내 타산적 가치를 감소시키기에 C의 삶을 우주적으로 중요하게 만든다.

고인이 된 이에게 과거의 불운이 여전히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 불운이 여전히 고인에게 나쁘다”는 진술을 프루지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고인이 존재하고 이 존재에게 과거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전히 과거 불운은 나쁘다”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진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과거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인간이 당시 불이익을 얻었고, 과거 사건에 대한 이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은 그 당시 당사자에게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과거의 사건이 추상적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계속해서 가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이 해석 하에선 잠시 존재하는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를 통해 인간의 삶이 우주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여전히 과거의 불운이 나쁘다”에 대한 본 논문의 이해는 가능한 해석 일뿐만 아니라 프루지의 이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기도 하다. 우주 X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악인에 의해 고문당했으나 쌍둥이 우주 Y에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주 전체의 역사를 고려하여 어떤 우주가 더 나쁜지 평가한다면 정답은 X라 할 수 있다. X에서는 악인에 의한 고문이 있었지만, Y에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인류가 사라진 후 한 시점을 잡아 그 시점의 두 우주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정답은 두 우주의 가치 총량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류 멸종 후 운석으로 구성된 두 우주는 어느 시점을 놓고 보아도 가치 없거나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듯하다.¹⁷⁾

17) 익명의 심사자는 고문받은 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루지의 해석은 인류 종말 후 우주 X와 Y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 프루지에 따르면 과거의 불행한 사건은 고인이 되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주장대로라면 우주 X 내 고문은 추상적 형태로 존재하는 희생자에게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멸종 후 한 시점을 잡아 우주 X와 Y를 비교하면 우주 X가 Y보다 더 나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프루지의 해석과 달리 본 논문의 해석은 추상적 존재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 사례를 옳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 해석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당사자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 종말 후 두 우주가 갖는 가치의 양은 같다. 위 사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해석을 지지할 근거가 되며, 본 논문의 해석을 지지하는 경우 “여전히 나쁘다”라는 상황 판단은 절대적 가치관점 설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5. 결론

본 논문은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하여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뒷받침하였다. 본 논문의 설명에 따르면 인생은 인간 활동과 그 결과가 천문학적 시간기준으로 장시간 존재해야지만 우주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인간 활동과 그 결과는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에, 특히나 그 지속기간이 길지 않기에 인생은 우주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

해당 시점의 우주 X는 같은 시점의 우주 Y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한다. 합당한 지적이지만 현재의 쟁점은 과거의 비극적 사건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논의에서 벗어나 있다. 더불어 정의롭지 못한 과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점을 비교하면 우주 X 그리고 Y가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이는 데, 이는 프루지의 해석이 아닌 본 논문의 해석을 지지하는 또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또 다른 설명인 시제 편향성 설명과 영구성 설명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옹호하거나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절대적 가치관점에 근거한 설명은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설명이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언젠가는 사라질 일”을 근거로 인간의 삶이 하찮은 것인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radford, G., “The Value of Achievement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2, 2013, 215~222쪽.
- Dorsey, D., “Future-Bias: A (Qualified) Defense”,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8, 2017, 351~373쪽.
- Früge, C., “Permanent Value”,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8, 2022, 356~372쪽.
- Greene, P., “Value in Very Long Lives”, *Journal of Moral Philosophy* 14, 2017, 416~434쪽.
- _____, “It Doesn’t Matter Because One Day It Will End”,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24, 2021, 165~182쪽.
- Greene, P./ Sullivan, M., “Against Time Bias”, *Ethics* 125, 2015, 947~970쪽.
- Kahane, G., “Meaningfulness and Importance”, ed. by Iddo Landau, *The Oxford Handbook of Meaning in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93~108쪽.
- _____, “Importance, Value, and Causal Impact”, *Journal of Moral Philosophy* 19, 2022, 577~601쪽.
- Kauppinen, A., “Meaningfulness and Tim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4, 2012, 345~377쪽.
- Landau, I., “The Meaning of Life *Sub Specie Aeternitati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9, 2011, 727~734쪽.
- Rescher, N., *Human Interests: Reflections on Philosophical Anthrop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Scheffler, S., *Death and the Afterlife*, ed. by Niko Kolod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inger, P.,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5.

Sullivan, M., *Time Biases: A Theory of Rational Planning and Personal Persist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olstoy, L., *Confession*, trans. by David Patters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3.

The Insignificance of a Human Life:

A Study On “One Day It Will End” Reasoning

Dong-yong Choi (Yonsei Univ. / Inha Univ.)

To show that a human life is insignificant, people often point out the fact that one day human actions and their outcomes will end. This paper explains why in showing that a human life is insignificant, it matters that one day human actions and their outcomes will end. A human being's life has cosmic significance just in case that human being brings out tremendous value change. However, human actions and their outcomes cannot make that change because one day they will end. This is why a human life is insignificant. After introducing the time-bias account and the permanence account, this paper shows that this paper's account is plausible in that it does not encounter the problems of these two accounts.

Key words: Significance of Life, One-day-it-will-end, Total Amount of Value, Time-bias, Permanence

최동용 e-mail: bronzeyong@gmail.com

투 고 일	2023년 01월 20일
심 사 일	2023년 02월 13일
게재확정	2023년 02월 14일